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기도와 말씀으로 홍해를 가른다

### -홍해작전 은혜 중에 진행-

드디어 홍해작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미 앞서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홍해에 발을 한 걸음 들여 놓았다. 육신은 지쳐 피곤하고 졸음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시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낙오하지 말고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고개를 돌려서도 안된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우리의 바로 옆에서 있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여기서 실족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어갈

수 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단 하나 기도와 말씀뿐이다.

앞으로 남은 15일들이 능력있고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우리는 이긴다. 기도와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이다. 그리고 6월25일 새벽 승전가를 주님과 함께 부를 것이다.

## 아프리카에 성령의 불길을

### -제9차 KIMCHI 신학세미나-

하나님께서 죽여가는 전세계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제9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도 변함없이 개최되었다.

메스컴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빈곤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서 50시간 이상 심지어는 8일이 걸리는 어려운 여정과 낯설고 익숙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조국을 말씀으로 부흥시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아프리카

의 교계지도자가 왔다.

우리가 이 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어 가는 그 땅에도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미신과 전통 종교에 사로잡혀있는 그들의 영안이 떠어지고 중족간의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단의 종 된 그들의 가슴에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제 어려운 여정 끝에 도착한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자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피어오르도록.

## 인터넷 상담 개설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보다 효율적인 상담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의 문의가 계속되어 인터넷 상담을 개설한 것이다.

상담을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 서울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 상담부에 접속하여 상담원들의 e-mail과 상담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상담원들의 e-mail과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법률 | sanglim@chollian.net  | 법률상식 및 소송절차        |
| 세무 | wk139@hnamir.com      | 세무상식 및 세무처리 부동산 상담 |
| 병무 | bslee@i5425.com       | 병무에 관한 전반          |
| 의료 | Adavid@hosanna.net    | 각종 질환자             |
| 교육 | Benjaded@hanmail.net  | 교육에 관한 전반          |
| 가정 | eunkim111@hanmail.net | 가정사 전반/알콜상담        |
| 결혼 | yhlee52@empal.com     | 초혼 및 재혼            |

\*상담원들과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사전예약(주일 12시30분~2시)을 원하는 성도는 간사(flowerob@hanmail.net)로 연락바란다.

### \*\*수화교실 수강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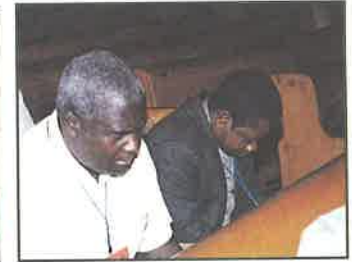
에바다부에서 농아인과 그 가족, 농아인을 사랑하는 건청인들을 위한 수화교실을 개설하고 초보자를 위한 초급반과 생활수화를 중심으로 강의할 중급반을 개강한다.

- 시간: 매주 주일 오후 1시~2시  
 장소: 초급반-에바다부실(603호), 중급반- 에바다부 교사실(609호)  
 대상: 초급반- 수화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중급반- 초급반을 수료하신 분  
 강사: 홍유미(밀알선교단 간사/서울교회 수화통역)  
 김상화(농아사회정보원장/서울교회 에바다부)  
 조남익(농아인협회 강남지부장/서울교회 에바다부)  
 교재는 밀알수화(밀알선교단 출판부)이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 이번주 이모저모



홍해작전 진군 시작 -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치세미나 - 암흑의 땅 아프리카를 구하소서 가난과 기아, 에이즈의 땅을 복음화 하자

### 금주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누가복음 11:9-10)

"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NIV Lk 11:9-10)

### 카메룬 선교전략 보고서



#### 교회의 상황

카메룬의 교회상황은 ①진정한 협력 및 기독교 윤리의부재, ②성경적 교육의 빈곤, ③교회간의 분쟁 ④자유 신학의 영향, ⑤사회적인 가난, ⑥리더십간의 분쟁과 투쟁 ⑦교회의 정치참여, ⑧외국 선교사들과의 공헌과 자국교회의 기대간의 부조화등으로 집약된다.

#### 복음화 전략

이러한 카메룬의 복음화 전략은

- ①연합과 교제의 구조 강화와② 전략적 지역에서의 교회간의 협력 ③ 복음주의적 신학 교육④ 기도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 차드의 복음화 전략보고서



#### 복음화의 국가적 전략

차드의 국가 복음화 전략은

- 1. 그리스도를 위한 차드의 조직적 복음화 캠페인 (1993년 시작, CES/TPC)

#### 2. 종래의 전략

- 1) 교도소 선교
- 2) 병원 선교
- 3) 군선교
- 4) 자비량 선교
- 5) 기독교 학교들에서 성경교육
- 6) 기독교 영화상영
- 7) 기독교 문서 선교 및 문서 배부
- 8) 미전도자들에 대한 전도 간증

등이나 다음의 5가지의 방해요소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 1. 헌신의 부족(지도자들의 헌신)

⇒(해결책) 의식화와 접촉

#### 2. 무관심

⇒(해결책) 정보, 교육, 내적치유와 기도, 재순환

- 3. 인력, 재력, 물력, 자원 동원의 부족

⇒(해결책) 가르침과 기도

- 4. 현장에서의 반대

⇒(해결책) 믿음과 기도

- 5. 전도자들의 교통수단의 부족

⇒(해결책) 1997년부터 천 세파운동

(1800원주기운동-교통비로)

#### 기도제목

- 1. 찬양

1) 하나님께 감사 : 복음화 캠페인 프로그램 안에서 복음화된 12개의 지역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이 기사는 제 9차 김치신학세미나 참가자들이 지난 6월7일 자국복음화를 위한 전략회의 결과보고서 및 기도제목을 수렴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

- 2) 한국 교회와 중부 아프리카 교회들 간의 상호교제를 감사

#### 2. 기도제목

- 1)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인한 긴장 문제 고조 -차드의 정치긴장 해제를 위하여
- 2) 조직적 복음화 캠페인, 그리스도를 위한 차드 (CES/TPC2001)
- 3) 새로 임명된 총무와 그 스텝들 협력하는 교회들 간의 협력관계를 위하여
- 4) 차드 살롬 신학교와 차드 교회의 지도자들의 훈련을 위하여
- 5) 차드의 기근의 상황과 강우량의 조절

### 콩고의 복음화 전략보고서



#### 목표

콩고의 복음화 전략 목표는 7가지로 다음과 같다.

- 1. 복음화
- 2. 교육-초등, 중등, 대학교육
- 3. 보건
- 4. 농업 증진 프로젝트
- 5. 성경적 신학 교육
- 6. 기독교 부녀 사업
- 7. 기독교 교육

#### 복음화 전략

- 1. 지역 교회의 복음화에 있어서 자치제도
- 2. 전도자양성소
- 3. 개인전도(전도사 장로 집사 일반성도들에 의한)
- 4. 복음화 집회
- 5. 교목, 원목, 교도소 목사제도

#### 기도제목

- 1. 복음화와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의 부재
- 2. 주의 종들의 지속적인 교육의 어려움
- 3. 반란군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힘
- 4. 미전도부족중의 밤불(BAMBOLES)부족 (끼쌍가니 남부 175KM 지역에 있는 부족),

- 피그미(적도 숲속 깊이 사는 부족)
- 5. 사역자들간의 진정한 교제의 부족 -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 거리적인 격차, 통신과 교통수단 부족

###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전략보고서



#### 1. 지역적 전략

- 1) 병원 설립
- 2) 군목, 원목, 감옥목사, UJC
- 3) 청년 부녀 선교
- 4) 주일학교 수양회
- 5) 실업인 선교
- 6) 학원 선교
- 7) 찬양대

#### 2. 구체적 전략

- 1) 기독교 영화상영
- 2) 사립학교의 성경교육
- 3) 자비량 선교
- 4) 교도소 방문
- 5) 군선교
- 6) 문서 선교
- 7) 이슬람 선교
- 8) 노방 전도

#### 복음화의 장애 요소

- 1. 지도자들의 헌신 부족
- 2.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무관심
- 3. 물질 인적 자원의 동원부족
- 4. 교통수단의 부족
- 5. 지역에서의 반대

#### 해결책

- 1. 접촉과 의식화
- 2. 정보, 훈련, 내적 치유, 재순환
- 3. 교육
- 4. 믿음

#### 기도제목

- 1. 중앙 아프리카의 정치상황의 수습이 빨리되도록
- 2. 지도자들의 윤리
- 3. 중앙 아프리카 교회 연합의 일치
- 4. 방기(BANGUI) 신학교(FATEB)와 교회 지도자 훈련

#### 감사 제목

한국 교회와 중앙아프리카 교회간의 교제

###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 홍성주 집사(8교구)

그 동안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교회를 세워 가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대상을 골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이복규 집사(10교구)

사랑의 빛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한 우둔한 저에게 감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저의 부족함을 사랑과 기도로써 늘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신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덜 구워져 쓸모 없는 저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길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려는 주님의 섭리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길가의 밭, 가시밭, 돌작밭이 옥토의 밭으로 개간되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다짐해 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맡겨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도를 본받아 믿는 자에게 덕을 세우며 불신자에게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드릴 수 있는 합당한 종으로써 겸손히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동역자 내조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관규 집사(9교구)

너무나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거나, 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부족

하기만 한 제가 감히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종들이 많은데 어찌 어린이아이와 같은 것을 택하여 주셨는지 궁금하면서도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라고 생각하며 기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울교회는 천국시민양성과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에게 구제라는 3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에 이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신실한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더욱더 기도해주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세재 집사(4교구)

K집사님 부부께,  
보내주신 사랑의 메일과 시를 잘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랑의 빛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해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신 지 5개월 여. 하지만 수년 간의 정이 듬뿍 쌓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지요. 지난 두 주간은 저희 믿음 생활 중 가장 혼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두려움은 사라져버렸지요. 장로로 피택되고 장립되면서 변화되어 가는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 같은 돌들로 명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분의 선택이 문제일 뿐이며 택하신 후에는 그 분께서 책임지고 빚어주신다는 것을 겸손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제가 그분의 손에 들림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어떻게 빚어 주실 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순종하며 맡기겠습니다. 그분의 손에 제가 들리기 위해 집사님 부부와 같은 귀한 분들의 손을 사용해 주셨음을 이 시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의 장로되기는 계속 될 터인데 주신 시를 가슴에 품고 집사님께 이 시를 돌려 드릴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 임상현 집사(12교구)

7년 전 반포동으로 예배당이 옮겨지면서 부족한 사람을 안수집사로 피택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치동 새 예배당 시대에 장로로까지 피택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한 시절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는 듯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평생을 섬김과 희생으로 일관하여 결국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서울교회와 서울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들 속에서 더 큰 희생으로 섬김의 생활을 실천하여 부활 후 맛보게 될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이 어둡고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많은 존경스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부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부족한 중에게 많은 사랑과 기대를 주신 여러 성도님들을 항상 기억하며 임직 때까지 기도도 준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더 큰 섬김과 충성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령순 경리)

#### 70인 전도대 - 장선자 성도(12교구)

언제부터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망설이고 있을 때 70인 전도대에서 글씨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슬비 전도 편지를 쓰게 되었다.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여 태신자를 얻으시면 난 태신자를 나이와 성별에 맞추어 이슬비 전도엽서를 보낸 대상자를 선택하여 매주에 한번 엽서를 띄운다. 처음엔 무척이나 어설피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신자들과 편지로, 전화로 친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몇 주에 한번씩 태신자들의 안부를 묻는다. 그러면 유료 값 아까우니 보내지 말라는 사람부터 너무 엽서가 예뻐서 액자에 끼워둔다는 사람. 매주 엽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태신자를 만나곤 한다.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난 이일을 묵묵히 하고자 한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 새로 왔어요 화장실 청소라도 하게 해주세요

신규식(4교구), 제태준(7교구), 김영실(12교구)  
김옥림(5교구), 전외숙(1교구), 편상범(3교구)

1부 새가족 모임은 끝나자마자 2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 가족예배와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 등 항상 부산하여 좀처럼 혼자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모을 기회가 없어 양해를 구하여 여섯 분을 겨우 한자리로 모시게 되었다.

**신규식:** 결혼 상대자의 권유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과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태준:** 서울교회 건축 시 페인트 팀장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교회는 난생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영실:** 그 동안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라도 해 보려고 했으나 물에 기름처럼 기존 교인들이 기회를 차단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서울교회에 나왔습니다.

**김옥림:** 처음 신앙을 가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서울교회가 국제적인 세미나도 개최하고 폭 넓은 모임과 활동을 하는 게 참 좋게 느껴져요.

**전외숙:** 남편(신기수 성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몇 년째 등산에 재미를 붙여 교회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신앙을 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등록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상범:** 작년 입당 때부터 처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싶었어요. 새가족부 교육을 통해 많은 것 배우고 오늘 수료합니다. 다시 성경공부 반에서 공부하면서 제게 맞는 봉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감사해요.

등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가족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신앙을 고백하고 수료하여 교회 각 부서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세요.



**김치세미나 특집 interview - 열정으로 달려 온 50여 시간!**

김치세미나 이틀째인 7일 밤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주를 향한 열정으로 참석하신 아프리카 불어권의 목회자들과 신학대학 교수들이 묶고 있는 올림픽 파크호텔을 방문했다.

그분들은 아프리카에서 파리기까지 8시간, 파리 공항에서 서울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린 30시간, 파리에서 인천 공항까지 11시간을 합하면 무려 50여시간을 육체의 피곤은 뒤로 한채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기쁘게 달려 온 순례자들이다. 흥해작전과 함께 진행중인 김치세미나 인지라 사적인 질문보다 그분들이 건너야 할 민족의 흥해는 어떤 것인가?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통역은 문형숙 선교사님이 수고하셨다

"오늘 흥해작전 중인 새벽예배에 참석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분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

먼저 중앙아프리카의 제라레우 학장은 반짝이는 눈으로 "이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참 좋은 훈련이 되었다"고 말했다. 차드의 강논교수는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 점검과 반성의 좋은 기회였다"

차드의 아쉴에 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서울교회에서 본 새벽예배가 비교된다. 개인적으로는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만 공동으로 하는 새벽기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아주 드물게 몇 곳에서만 하고 있다. 본국에 돌아가면 새벽기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이당쓰 차드신학교 학장은 "개인적으로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꼭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가 영적 무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질문인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당신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라는 질문에 다이당쓰 학장은 긴급기도 제목으로 "본국을 떠나올 때 대통령 선거이후로 정국이 팽팽한 긴장 상태였는데 정치적 안정과 평화가 있기를, 또한 차드엔 14개의 지방이 있는데 이미 12개의 지방엔 복음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남은 2개 지역에 복음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는 기도제목들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마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라는 말씀처럼 "조직적인 복음전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을 모아 사단의 진영에 집중사격을 할 수 있도록"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제라레우 학장은 "본국에 발생한 내란으로 불안한 정국의 안정과 복음전파에 중요한 제대로 갖춰진 신학교육기관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그분들의 기도제목들을 들으며 2001년 흥해작전의 9번째 기도제목인 "제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생기를 불어넣고 교회가 갱신되는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떠올랐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치세미나를 통해 아프리카와 한국이 중보기도의 끈으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지고 그로 인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많아지기를 조용히 기도 드려 본다.

편집부(문형미)

**학기제 세미나의 정착 - 그래프로 보는 목회자 세미나**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의 지난 18학기 동안 현황자료들의 각종 수치들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발적인 세미나가 아닌 한 장소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 학기가 10주간 진행되고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수료자가 될 수 있는 학기제 세미나라는 독특한 방식을 먼저 이해하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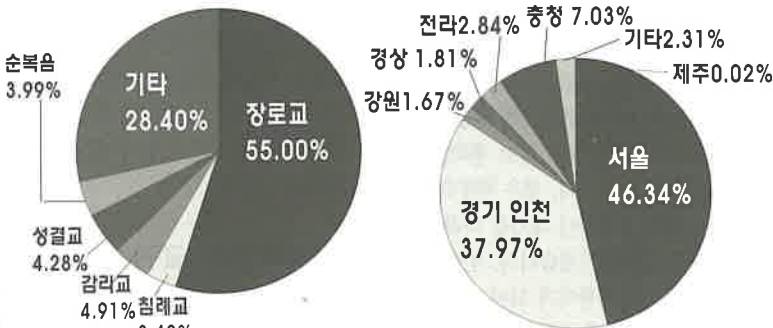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이수자들과 수료자(4학기이상 이수)들을 합한 18학기

까지의 총 수강자 4,538명중 서울 이외의 거주자가 2,435명이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에 이르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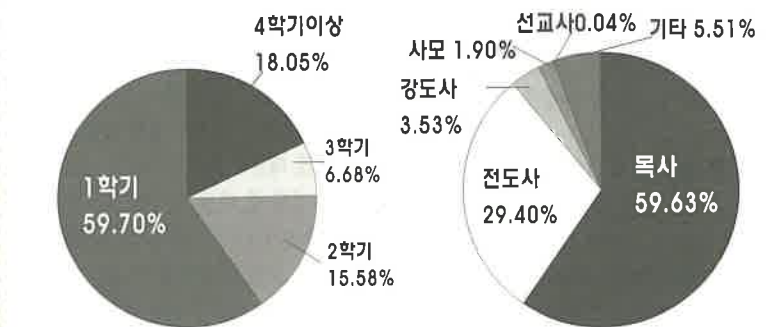
한편 총 수강자의 18%인 819명만이 수료자가 되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료자는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료자의 56%가 지방 거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숫자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며 결코 적지 않은 수료자가 배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제주지역에까지 수료자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그간 우리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의 열기가 전국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강자들의 교단분포는 아쉽게도 자료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기타로 분류된 수강자가 30%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교계의 교단현황을 감안하여 본다면 목회자 세미나가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일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교회갱신연구원>



교단분포 분석



지역분포

이수학기 분석

직분 분포

**김치 세미나에 도움주신 가정** - 실업인선교회 (박철훈 장로, 이근홍 성도) 김용호집사, 김사무엘 장로 정경원권사, 최용길 집사, 우지원집사, 김복승, 김현숙 성도, 김명옥 권사, 홍순덕집사, 고기성성도 박본옥집사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김훈 집사 김혜아 집사 - 어머니(이옥녀 권사)의 생신을 감사하며
- ☞ 목회자 세미나 간식 제공 가정 :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홍성주 집사 여현진 권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서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흥해작전의 12가지 기도제목 성취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 거리